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평균점수인 70.25보다 훨씬 높은 91.54의 종합점수를 받아 우수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받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고 질환 발병 시 조기 치료와 관리가 최선의 방법이므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금까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2 지역인사와 함께하는 고양포럼 참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8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 43회 고양포럼에 참석하여 고양시 사회, 문화, 경제, 종교, 교육계 지도자 약 100여 명과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포럼은 고양시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신년인사를 겸해 진행되었다. 특히, '2016년 어떤 일에 정성을 쏟으실 건가요?'의 제목으로 진행된 20초 토크 릴레이에서는 각 기관의 포부와 고양시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김정대 건진운영팀장은 "고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동국대학교일산캠퍼스와 연계하여 고양시 영재들을 위한 교육에도 중점을 두는 2016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03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김포가연마을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자리 만들어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회장 구병수)는 23일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가연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는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행정직, 기술직 등 회원 35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해서 치료받기 어려운 중증장애 환우를 위해 마련되었고, 50여 명의 환우에게 양방진료, 재활치료, 수액요법 등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오랜 기간 관절 구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 환우 2명에게 좀 더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직접 상지보조기를 제작하여 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 환우들과 연우 회원들이 힘을 모아 샌드위치 만들기 등 음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좀 더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가연마을은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재활의학과 소속 연우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2012년부터 맺어온 인연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으며, 연우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04 간편한 연조엑스형태의 쌍화탕 출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 탕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쌍화탕 연조엑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쌍화탕은 탕제로도 처방이 가능하나, 이번에 출시한 연조엑스는 탕제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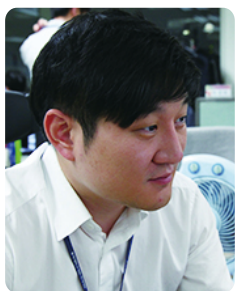
쌍화는 기(氣)와 혈(血)을 쌍(雙)으로 조화(調和)롭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적응증으로는 허로 손상으로 기혈이 허하거나, 힘든 일을 한 뒤, 중병을 앓은 뒤에 온몸이 노곤하고 몹시 피로감을 느끼며, 현훈, 가슴 두근거림, 자한증상에 효과가 있다.



주인공 44호

의료정보팀

김동훈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처음'과 '부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처음' 직장에 왔을 때,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 투덜대고 내 일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를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부탁을 해결해 주는 관계 속에 성장합니다.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제 몫을 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제가 처음 업무를 시작하여 모든 일이 낯설 때 제 '시작'을 너무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의료정보팀 원무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훈 선생님입니다. 병원의 방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지만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잦은 부탁에도, 무리한 요구에도, 불평 없이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주시는 김동훈 선생님의 친절함 배려에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저 또한 상대방의 부탁을 내 맘같이 대하고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해내는 김동훈 선생님을 따라 해 보고 싶어집니다.

기획예산팀 김태균